

2차 공론마당 보도자료

“답을 정해놓고 가자는 운동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운동”

광복100년국민동행 준비위 제2차 공론마당
— 기술·경제·노동과 사회·교육·세대·젠더를 마주 놓다

7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
임채성 명예교수(기술·경제·노동)·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사회·교육)·
우석훈 경제학자(세대·젠더) 발제
박태주·정대화·장혜영 지정토론 — 원로·중견·청년 세대 통합 토론
장기주의·공화·청년·숙의 네 키워드 도출, 8월 14일 '국민동행 선언문'으로 이어짐

"70%의 확신으로 싸우고 30%는 성찰의 여백으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밀어내고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시대. 그러나 2045년 세계 GDP 상위 7개국 전망에 한국의 이름은 없다. 한국 10대의 자살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극우 놀이 문화가 자라고 있다. 가장 앞선 AI 전환의 나라가 가장 뒤쳐진 녹색 전환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 역설의 목록 앞에서, 시민들이 다시 모여 물었다. 우리는 광복 100년에 어떤 나라에서 함께 살 것인가.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 '광복100년 국민동행' 준비위원회가 지난 6월 1차 공론마당('평화·민주주의', '생명·생태')에 이어 두 번째 공론의 장을 열었다. 이번 의제는 '기술·경제·노동'과 '사회·교육·세대·젠더'. 1차에서 확인한 철학적 토대 — 생태문명 전환, 민주주의 심화, 공화성 회복, 세대 간 대화 — 를 경제·기술·교육·사회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묻는 자리였다. 광복 100주년(2045년)까지 남은 시간은 19년이다.

이번 공론마당에는 임채성 건국대 명예교수(기술경영학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우석훈 경제학자가 발제자로,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장혜영 전 국회의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원로·중견·청년 3세대가 발제와 토론을 주고받는 세대 통합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사회·좌장을 맡아 3시간의 토론을 이끌었다.

□ 제1세션 — 기술·경제·노동: 정답의 나라에서 '싸게 틀리는' 나라로

임채성 건국대 명예교수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 변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로 기조 발제를 열었다. 지난 50년의 디지털화·인터넷화를 거쳐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밀어내고 중심이 되는 시기가 시작됐으며, 향후 20년은 소프트웨어가 AI를 거느리고 기업은 "물건을 팔고 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고객을 케어하며 서비스에 제품을 끼워 파는 구조로 업(業)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다. 그는 이 변화를 애플레가 나비가 되는 전환(AX)에 비유했다.

일자리 공포에 대해서는 신중한 낙관을 폈다. 이코노미스트지 분석 기준으로 AI 때문에 전체 고용이 줄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관건은 "AI가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든 우리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곧 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의 좌표에 대한 진단은 냉정했다. 2045년 세계 GDP 상위 7개국 전망에 한국은 없다. 그러나 한국은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전환기마다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해냈고, CDMA·디지털TV처럼 선도국과 초기 실증을 함께 하며 세계로 나간 경험이 있다. 인구 5천만의 한국이 갈 길은 기후·에너지·개도국 산업화 같은 인류 공통 문제를 푸는 '데모 선도국'이며, 이것이 흥익인간 정신, 광복 100년의 정신과 이어진다고 그는 말했다.

국민이 할 일로 그가 내놓은 답은 '태도 전환', 한마디로 '싸게 틀리기'였다. 정답부터 찾아 한 번에 완성하려는 하드웨어형 완벽주의에서, 자기 아이디어의 가정을 써보고 현실에 붙여 깨져보고 학습하는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는 소프트웨어형 태도로 옮겨가자는 것이다. 크게 투자한 뒤 틀리면 '비싸게 틀리는' 것이고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치른다. 그는 '싸게 틀리기'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정부·산업단체에 축적하는 웹 광장, 청년들이 유망 직종 가설을 직접 검증하는 사이클 운동 두 가지를 제안했다. "어중간한 시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청중의 물음에는 "핵심은 대충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을 명시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AI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값싼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에 나선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은 성장 담론과 AI 의제가 전환의 정의, 불평등, 민주주의, 노동운동의 과제 같은 모든 의제를 깔때기처럼 빨아들이는 'AI 의제의 블랙홀화'를 경계했다.

기후와의 충돌도 짚었다. 삼성전자는 발전 공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3위의 탄소 배출 기업인데, 용인 산업단지 전력을 위해 핵발전·LNG 증설이 선언될 뿐 감축 이야기는 없다. "가장 앞선 AX의 나라와 가장 뒤처진 GX의 나라"의 격차가 벌어지는 중이며, AI 전환과 기후위기가 서로 발목을 잡는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이면도 드러냈다. 전체 고용 감소의 증거는 없어도 청년 일자리는 분명히 줄고 있고, 데이터 라벨러·AI 트레이너·플랫폼 노동 같은 'AI 뒤의 보이지 않는 노동'은 법·제도 보호 밖에 있으며, 석탄화력·전기차 전환 이직자는 통계조차 없다. 기술의 부정적 효과가 운명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면, 핵심은 그 선택을 담당할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절차적 정의의 질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일탈인가 새로운 패턴 세터인가, 같은 사업장 내 6억 대 600만의 성과급 격차, 공급망 노동자와 초과이익의 배분 — 우리 사회가 고민해본 적 없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아직 브레인스토밍 단계이며, 사회적 대타협은 당사자와 정부의 의지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지금은 곳곳의 토론 활성화가 먼저라고 그는 정리했다.

□ 제2세션 — 사회·교육: 극우 시대를 막는 '햇볕정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유럽에서 미국, 일본을 거친 극우의 시대가 한국에도 필연적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박근혜·이재명 피습 사건을 대하는 양 진영의 방어기제가 보여주듯 공동체의 최소 기반이 균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87년 6월항쟁의 위대한 성취가 '내전의 정치화'였다면 지금은 거꾸로 '정치의 내전화' 위기이며, 민주진보가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며 성장했듯 지금의 극우에는 민주화의 그늘(내로남불, 정치적 올바름의 최대주의적 돌진)에 촉발된 자발적 대중운동의 성격이 있다 — 이 그림자를 응시하며 실천을 복합화해야 극우 시대를 막는다는 진단이었다.

대안으로 그는 '공화적 정치', 이른바 '햇볕정치'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부정선거 의혹의 여야 동수 검증위 같은 음지 의제의 양지화, 높아진 정치의식을 수용할 직접민주주의 기제, 내로남불 사안의 일반 규칙화, 민주화운동의 자기희생적 헌신을 2030에게 보여주기, 올바름이 공포가 아니라 해방이 되게 하는 좁은 길. 그는 이를 "70%의 확신으로 싸우고 30%는 성찰의 여백으로"라는 말로 요약했다. 교육에서는 자유권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공존·포용의 관계적 권리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실 공론장에서 혐오 주제를 정면으로 꺼내는 역지사지 토론모형(1단계 찬성 작성, 2단계 반대 토론)을 제시했다. 국민동행을 향해서는 재능·시간·재산의 일부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남기는 '사회적 상속 운동'(제2의 장기기증운동)과 ODA 증액 운동, 그리고 국경 없는

아시아·지구시민학교·AI 군사무기화 제한 국제규범 선도 같은 트랜스내셔널 진보의 상상을 펼쳤다.

□ 우석훈 경제학자 — "전혀 새로운 10대가 오고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젠더와 세대, 전혀 새로운 10대, 그후는?'을 주제로, 데이터조차 없는 한국 10대 연구의 공백에서 시작했다. 결론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같았다. 10~15년 후 한국이 극우화의 사례가 될 것이며, 유럽 사례에 비추어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이 68혁명 기점 60년 사이클을 돌았다면 한국은 87년 기점 40년 사이클로 같은 양상이 더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대 남성의 젠더 투표가 나타난 미국, 다카이치 압승에서 젠더 격차가 사라진 일본이 나란히 놓였다.

그가 전한 10대의 풍경은 좌중을 숙연하게 했다. 초등 5~6학년의 김정은 놀이가 시진핑 놀이를 거쳐 중1의 노무현 놀이('523' 코드)로 이어지는 극우 트랙이 형성돼 있고, 최근에는 남녀 차이 없이 수렴한다. 젠더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극우로 함께 수렴하며 완화되는 양상이며, "중국을 끌어들인 노무현, 속국화한 문재인"이라는 서사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대는 행복하지도 않다. 한국 10대의 자살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2023년 인구 10만 명당 8.3명)이고 우울증도 최고 수준이다. 그는 차별금지법 논의의 후속으로서 혐오범죄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봤고, 통일 담론이 20대 이하에서 불가능한 언어가 된 현실, 한중일 상호 혐오 증가에 따른 국지전 리스크, 사교육발 수도권 청년 블랙홀, 새 세대의 국민연금 거부감이 연금·복지제도의 지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함께 내놔다.

□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교육 문제의 뿌리로 그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30년간 틀을 바꿀 계기가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입시지옥·사교육·암기 경쟁주의가 여러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됐고, 전문대의 96%, 4년제의 81%가 사학인 고등교육은 빈사 상태다. 교육이 사회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잃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엔진사업으로 변질됐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역할이 의문시된다는 것, 5.31을 넘어서는 새 교육 틀을 교육계·대학·정부·정당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희연 발제에는 세 가지 논점을 보탰다. 문제의 뿌리는 운동의 전투성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목표의 상실 — "왜"를 잃은 권력투쟁으로의 변질이라는 것, 10·20대가 태어나 본 세상은 민주 세력이 집권한 '문제투성이 사회'였다는 그들의 시각을 봐야 한다는 것, 유럽과 달리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내내 극우였던 한국에서는 민주화 세대의 반성과 함께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사회적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그는 릴케의 시 「가을날」을 빌려 좌중에 긴 여운을 남겼다. "지금 집이 없는 서울의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실한 근로로는 집을 살 수 없게 된 세대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호소였다.

□ 장혜영 전 국회의원

장혜영 전 의원은 광복 100년을 20년 앞두고 미리 논의하는 이 자리 자체의 의미를 짚었다. 1926년의 조선인에게 광복이 그랬듯, 어둠 속에서 추구할 빛의 방향을 미리 규정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는 진보/보수가 더 이상 가치의 언어가 아니라 진영을 지칭하는 '발음기호'가 됐다고 진단했다. 양당의 정책이 한미동맹·금투세 폐지·대기업 세액공제·원전까지 수렴하면서 권력투쟁만 남았는데, 유독 '청년 보수화'를 말할 때만 보수가 갑자기 가치의 언어로 쓰인다. 이는 세대 내 불평등과 다양성을 지우는 규정이며,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비전을 잃은 586(686) 세대라는 것이다. 젠더에 대해서는 페미니즘이 젠더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사와 함께해온 성불평등·성차별·성폭력에 대해 최근 30~40년 겨우 말을 찾고 여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완성이 성평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생(갱신)이 성평등"이라는 담론 전환을 제안했다. 8월 선언문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의 '문화의 힘' 원문 —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심는 자유 — 을 인용하며, 어린이도 읽을 수 있게 쉽고, 꾸짖지 않고 초대하는 문헌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플로어 — "민주주의 40년을 넘어 민주공화 40년으로"

전체 토론에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광복 100년 담론의 제안자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40년 실패의 책임 최소 60%는 민주 세력에 있다"며 '민주주의 40년'을 넘어 '민주공화 40년'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아무 죄 없이 조롱·혐오·죽임을 당하는 청년 세대를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 빚댄 '세대학살' 개념을 제기했고, 3당합당·DJP연합·대연정이 있었던 노태우~노무현 시기가 지금보다 공화의 가치가 높았다는 역설, 민주 세력의 위성정당 창당은 전 세계에 예가 없는 일이라는 반성도 내놔다.

윤범기 MBN 기자는 "노무현이 중국을 끌어들었다"는 10대의 서사는 가짜뉴스이며 한중수교는 노태우 정부의 업적이라고 바로잡았다. 10년간 청소년 연설대전에서 만난 1천여 명의 10대는 혐오에 간혀 있지 않았으며, 문제는 기성세대가 10대와의 직접 만남을 회피하는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원로 여성학 연구자는 여성혐오가 두드러진 지난 10~20년간 민주화를 이끈 남성 어른들이 젊은 남성들과 젠더 심층 대화에 나서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광복 100년의 포용·공존의 중심축 하나는 구조적 성별 관계의 전환이어야

하고 거기에 남성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성 교수는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구체적이지 않은 담론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탄소국경조치처럼 노동·기후·산업이 겹치는 당장의 과제부터 구체적 대안을 시각화해 대화하자고 보충했다.

□ "장기주의·공화·청년·숙의 — 질문을 던지는 운동"

사회를 맡은 김태일 전 총장은 "이 운동은 답을 정해놓고 가자는 운동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운동"이라며 두 차례 공론마당을 관통한 키워드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현안 해결이 아닌 미래 질서의 설계에 나선 시민운동 최초의 시도로서의 '장기주의', 진영을 넘는 의제로서의 '공화', 고독이라는 시대 감정과의 감성적 접촉이 필요한 '청년', 대결과 혐오를 증폭하는 대의정치를 보완할 기제로서의 '숙의'다. 광복 100년이 장기주의와 문명전환적 문제의식을 담는다면, 국민동행은 공감·돌봄·상생·협력·공존·포용의 가치를 담는다. 남은 과제는 이 선택을 구현할 사회적 힘, 궁극적으로 정치적 힘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맺었다.



(사진: 제2차 공론마당 발제·토론 현장)